
**농업 및 농촌통계 개선을 위한
글로벌전략 이태지역추진위원회 참가 결과보고**

2014. 11.

**사 회 통 계 국
농 어 업 통 계 과**

1. 회의 개요

□ 일시 및 장소 : 2014. 11. 13(목) ~ 11. 14(금), 태국 방콕

□ 회의명 : 농업 및 농촌통계 개선을 위한 글로벌전략 아태지역추진 위원회(Global Strategy to Improvement Agricultural and Rural Statistics, Regional Steering Committee for Asia and Pacific)

□ 참가국 및 인원

○ 회원국 및 회원(총 40명)

- (회원국) 중국, 인디아, 일본, 베트남 등 8개국 [(권역별(4개) 2개]
- (회원) Ms. Dalisay(ADB), Ms. Margarita(UNESCAP-SIAP) 등 3명
- (이행파트너:국제기구) UNESCAP(1), FAO(1) 2명
- (대사관) 한국(1), 일본(1), 독일(1), 태국(1) 등 8명
- (옵저버) 한국(2), AFSIS(1) 3명
- (국별 대표) 방글라데시(1), 부탄(1), 인도네시아(1) 3명
- (옵저버) 한국(2), AFSIS(1) 3명
- (기타) FAO 아태지역사무소 10명

○ 한국 참가자 : 농어업통계과 4급 박상영, 5급 김상진

□ 동 회의의 특징 및 참가배경

< 회의 특징 >

○ 동 회의는 농업 및 농촌통계 개선을 위한 글로벌전략 및 실천계획 이행을 위해서 아태지역의 모든 주요 사항들에 대한 방향 및 세부사항 집행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임

- 동 회의는 동 기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2011년 8월 구성된 아태지역추진그룹(Steering Group for Asia and Pacific)이 2012년 구성되고 운영기회가 없었던 아태 지역추진위원회(RSC)에 통합되면서 새롭게 발족되었음
- 이번 회의에서는 24차 아태지역농업통계위원회('12.10) 및 2013년 글로벌 추진위원회에서 승인된 아태지역 글로벌전략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현황과 지난 1차 회의와 2차 회의에서 선정된 시범국가들의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비롯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폭넓은 전문가자문을 받기위한 자리임
- 한편, 아태지역추진위원회는 농업통계 글로벌전략의 이행을 촉진하고 심층적인 방향 제시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최소 연2회 동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

< 참가 배경 >

- 우리나라는 글로벌 전략 수립 과정(2009년 이래) 및 세부 실행 계획이 작성되는 기간 동안 Involve되지 않아 정보공유 및 통계협력상 문제점 야기
- 그러던 중 '12. 12월 UNESCAP회의(통계청장, 국제통계과장 참석)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전략 추진을 위한 추진그룹 참가가능여부를 타진하고 여의치 못할 시 웹포럼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여 읍저버 자격을 얻음
(5년 임기 중 2.5년)

II. 회의 내용 및 결과

< 아태지역 농업통계 발전을 위한 글로벌전략 브리핑 >

□ ITEM 1 : 글로벌전략 기술지원 분야 추진현황

- 대상국가 20개국 중 9개 국가가 글로벌전략 이행 시범국가로 선정 되었으며, 이 중 6개국에서 기술지원 우선분야를 확정하고 5개국에 대한 심층진단이 완료
 - 다만, 현재 글로벌전략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국가는 없는 상황
- 시범국가들은 대체로 제도적 인프라가 취약하고, 통계적 방법론 또한 낙후되어 있으며 재정적 및 인적자원도 빈약한 상황

□ ITEM 2 : 시범국가에서의 글로벌전략 이행상황

- 스리랑카
 - 중앙통계기관인 센서스통계부를 중심으로 집중형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통계발전계획은 미수립
 -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및 논작물수확량조사 및 작물예상량조사 개선에 대한 수요 및 우선순위가 높음
- 인도네시아
 - 중앙통계기관인 산출표준부(BPS: Bureau of Product Standards)를 중심으로 집중형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농업통계발전 전략을 포함한 2015~2019 통계발전전략계획 마련 중
 - 한편, 인적통계역량 및 방법론 제고 및 조사설계 분야 수요 높음

○ 방글라데시

- 방글라데시 통계국(BBS)를 중심으로 집중형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61개 전략목표 달성을 골자로 하는 10개년 국가통계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현재 30개 전략과제가 추진 중
- 현재 농업통계발전전략* 수립 및 이해관계자간의 조정강화, 통합 조사계획**의 수립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

* 작물생산량 추정 강화, 통계분석 및 인적역량 제고 등

** 범정부 농업통계조사 일정표 수립, 통합 표본추출틀 구축 등

○ 부탄

- 국가통계부(NSB)가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통계법안이 마무리되어 정부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
- 국가통계발전전략 초안을 마련하여 현재 검토 중이며 농업통계 분야에 대한 조정은 농림부가 주관
- 단기적으로는 작물, 축산동향 개발·개선 및 인적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가 크고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지적 및 재생가능한 천연자원 총조사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

○ 사모아

- 2012년 사모아개발 5개년 전략의 틀 내에서 농업부문의 활력제고를 위한 노력이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사모아 통계발전을 위한 10개년 전략[농업분야 2011~15]을 수립
- 2015년 농업조사 계획수립 등 정기적인 농업생산통계의 개발 및 자료수집방법 개선, 통계역량 제고 등 수요가 시급

□ ITEM 3 : 재원조달 보고(FAO Resource Partner)

< 제3차 아태지역 농업통계 추진위원회 >

□ ITEM 1 : 지역사무소 활동 보고

- 지역추진위원회 운영
 - 2013년 활동보고서 승인
 - 2014년 사업계획서 및 2014년 세부예산안 승인 등
- 조정 활동
 - 매월 실무전담반 회의 개최를 통해 추진 협력기구(SIAP, ADB) 등과 함께 상호조정 및 정보공유를 활성화
 - 제9차 글로벌 추진위원회('14.9) 및 수시 지역별 회의 개최 등
- 기타 활동
 - (보고서 발간) 2013 활동보고서, 2013 재정보고서, 2014 사업계획서 등
 - (소통·홍보) 지역별 소통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채용 등
 - (점검·평가) 점검 및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및 관련 전문가 채용 등

□ ITEM 2 : 지역사무소 기술지원 활동 보고

- 지역사무소는 글로벌전략의 3대축(최소핵심지표 생산, 농업통계의 국가통계에의 통합, 지속가능한 농업통계시스템 구축) 및 글로벌 전략의 홍보, 개별적인 지역별 농업통계 쟁점을 중심으로 기술지원
 - 이해관계자·기관담당자 등 면담을 통해 역량평가 및 보고서 작성
 - * 국가별 역량진단은 제도적 인프라 등 4개 부문 23개 항목으로 진행 (현재 방글라데시, 부탄, 인도네시아, 스리랑카, 사모아 5개국 완료)

- 아울러, 방글라데시, 부탄,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장단기 우선순위를 반영한 국가별 글로벌 전략 추진 제안서 기 수립
 - 피지, 라오스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차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역량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2차 면담 추진 등

□ ITEM 3 : 2015년 시범사업 국가 추가 선정

- 현재 글로벌 전략 추진 시범사업 국가는 총 9개국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무소 및 이행파트너(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등)로부터 재정·기술·교육훈련 등 지원
 - * 대상국: 방글라데시, 부탄, 피지, 조지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미얀마, 사모아, 스리랑카
- 2015년 추가 시범사업 국가 선정은 해당 국가의 글로벌전략 이행을 위한 정치적 관심정도, 해당국가에서 농업의 중요도 및 해당국가의 통계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
 - 이와 관련, 아프카니스탄, 캄보디아, 쿡 아일랜드, 키리바티, 말레이시아, 몰디브, 몽골, 파푸아 뉴기니, 통가, 베트남 등 10개국이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아프카니스탄, 캄보디아, 파푸아 뉴기니, 베트남, 파키스탄, 몰디브 6개국을 최종 선정

□ ITEM 4 : SIAP 교육훈련 보고

- 교육훈련은 글로벌전략 추진을 위한 4대 축(기술지원, 연구, 홍보, 교육훈련) 중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
 - 국가별 심층진단을 거쳐 마련된 국가별 글로벌전략추진 제안서에 따른 교육훈련수요를 반영하여 실시

- 교육훈련 지원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교육 훈련기관에서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교재 설계, 전체 교육 프로그램에의 농업통계 분야의 통합 등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중요
- 한편, 아태통계센터(SIAP)는 교육훈련기회 확대를 위한 전문가 채용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추진위원회에 각국 전문가 추천 요청 하면서 교육훈련예산 부족에 따른 국가별 장단기 교육훈련수요 충족 및 이러닝 교과개발 등 어려움을 설명
- 2014년 교육훈련 요약
 - First Meeting of the Network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Training in Asia and the Pacific and to its Organizational Meeting[Chiba, 22-24, April 2014]
 - Sixth Workshop ON Forging Partnerships in Statistical Training in Asia and the Pacific: Networking for Agricultural and Rural Statistics[Tsukuba, Ibaraki Prefecture, 2-4 September 2014]
 - Expert Meeting on Skills Framework and Training Needs Assessment Tools for Agriculture and Rural StatisticsTsukuba, Ibaraki Prefecture, 5 September 2014]
 -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ampling Methods for Producing Core Data Items for Agricultural and Rural Statistics[Jakarta, 29 September 2014]
 - Workshop on Measuring Sustainable Agriculture, Food Security and Poverty Alleviation for Enhancing Accountability in the Post-2015 Development Agenda[Bogor, 24-28 November 2014]
 - Training Course on Assessing Training Needs of the Statistical Workforce in Agricultural Statistics[Chiba, 15-18 December 2014]

- Fourth RAP Regional Workshop on Building Training Resources for Improving Agricultural and Rural Statistics: Survey Methods for Agricultural Statistics - Current Practices and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[Tehran, 14-18 December 2014]

□ ITEM 5 : 농업·농촌통계 개선 지원을 위한 ADB 활동 보고

-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통계 및 방법론 선행 연구
 - 라오스 농업통계 자료 간 정합성 비교분석
 - 부탄 생활수준조사를 이용한 도농 가구 비교분석
 - 부탄 농업통계 자료 간 정합성 비교분석
 - 라오스 농업 자료수집 방법론 개선 연구
 - 필리핀 농업면적추정을 위한 경지정보시스템 도입 연구 등
- 이와 함께, 아시아개발은행(ADB)은 전천후 관측위성을 활용한 작물재배면적 및 작황정보 수집방법을 소개
 - 일본 항공우주탐사청(Aerospace Exploration Agency)이 개발한 INAHOR(INternational Asian Harvest MOnitoring System for Rice) 프로그램 등
- 교육훈련
 - (라오스) .Basic Course on Statistics
 - .A Short Course on Understanding National Accounts
 - .A short Course on Sample Survey Concepts & Analysis
 - .Training on Improving the Data Collection System for Agricultural Statistics

- (부탄) .Workshop on Data Documentation and Archiving
- (베트남) .A short Course on Sample Survey Design
 .An Intermediate Course on Probability Sample Survey
 .Designing Survey Instruments and Planning Survey
 Operations
- 아울러, 내년 말까지는 농업통계에의 원격탐사기술의 활용을 위한
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 계획

□ ITEM 6 : 국가별 제안서 검토

- 국가별 심층진단을 통해 도출된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단기 및
 중기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검토
 - 최종적으로 글로벌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가별 제안서에
 대한 사업의 타당성, 지원규모 및 기타 고려사항을 검토
- 방글라데시
 - 조정기제 개선, 통합 총조사 개발 및 농업통계개발전략 수립을
 위해 15만 달러 재정지원 필요성 제안
- 부탄
 - 글로벌전략 최소핵심지표 생산의 일환에 따른 작물통계 개선을
 위해 12.9만 달러, 가축통계 개선을 위해 10.6만 달러가 필요하나
 국가별 재정지원한도 15만 달러를 고려 시 최우선 과제인 작물
 통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
- 인도네시아
 - 농업통계개발전략 수립을 위해 8.8만 달러 재정지원 필요성 제안

○ 라오스

- 행정보고체계 개선, 농업통계 공표 인프라 구축, 농업통계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16.9만 달러 재정지원 제안
- 라오스의 경우 국가별 재정지원한도를 1.9만 달러 상회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농업통계체계의 개선에 대한 시급성을 인정

○ 사모아

- 통계인력 역량개발 등을 위한 4.9만 달러 재정지원 요청

○ 스리랑카

- 국민계정 생산을 위한 농업통계 개선 및 작물 생산량 통계 개선 등을 위해 총 14.3만 달러 재정지원 요청

○ 동 추진위원회는 FAO 지역사무소가 제안한 상기 안에 대해 이견 없이 승인

□ ITEM 7 : 기타 활동

○ 2015년 연간 업무계획 및 예산안 검토

- 지역사무소는 지역내 조정역할 강화, 지역추진위원회 개최 등 거버넌스 활성화, 글로벌전략에 대한 홍보, 시범사업국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및 기술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
- 아울러, 동 지역사무소는 총 283.1만 달러의 예산안을 보고하였으며 동 추진위원회는 이견 없이 승인

○ 아태지역 추진위원회 지배구조 검토 등

- 현 위원장 및 4개 회원국의 임기가 내년 9월 종료되어 현 부위원장의 위원장 추천 및 4개 회원국에 대한 재선정이 필요성 보고 등

Ⅲ. 시사점

- 농업통계발전 글로벌 전략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기초통계의 부족 및 개도국의 신규통계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
 - FAO를 비롯한 다수 국제기구(ISI, WB, ADB, ESCAP 등)가 3년여에 걸친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 마련 및 UN통계위원회 승인 완료('10년)
 - 이를 위해 각 지역사무소·지역추진위원회는 지역별(대륙) 농업 및 농촌발전 지원하고 통계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(Action Plan; 2013~2017)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및 지원

- 우리나라는 '08년 농식품부로부터 농어업통계 이관을 계기로 '12년 말 UNESCAP 통계위원회(통계청장, 국제통계과장 참석)에서 아태 지역 추진위원회(RSC) 참여를 희망하여 읍저버 자격으로 참석 중
 - FAO 및 국제적 여론은 한국이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해 주기를 희망
 - ⇒ 이와 관련, 이번 회의에서 통계청은 '14~'15 경지총조사가 원격 탐사기반으로 최초 실시되는 만큼 동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동 경험 및 교훈을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

- 한편, 이번 지역추진위원회에서는 주로 지역사무소의 그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
 - 특히, 지역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개 시범국가를 중심으로 심층진단 및 글로벌전략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고무적인 측면도 있었으나
 - 당장은 국가별 재정지원한도가 1.5만 달러로 제한적이고 지역사무소 및

아태지역사무소의 교육훈련인력 부족 등으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